



## 안전은 원칙! 원칙을 고수할 때 무재해 이룩

- 성원건설(주) 대전 대흥동 올리비아복합건물현장 -



▲ 이 종 선 소장

지난 달에는 태풍으로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하더니 이번 달에는 장마전선이 마음을 울적하게 한다. 이번 장마비가 아랫 지방에 많은 피해를 가져다 주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대전으로 향했다.

역시나 대전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굵은 빗방울이 타고 있던 차창을 무섭게 때렸다.

악조건 속에서도 21세기를 맞아 경영혁신과 품질개선, 고객만족을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성원건설에서 안전을 앞세워 안전·고품질 시공을 하고 있는 현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았다. 바로 대전 대흥동 올리비아 복합건물 현장(소장 이종선)이다.

### 화장실에서 시작되는 후생복지 증진

현장의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는 절대적일 만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성원건설은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못한 현장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대해 철저하다. 이렇게 성원건설이 안전관리가 철저한것은 전윤수 회장이 지향하는 정리정돈,

## 건설안전리포트



현장 후생복지 증진에서 비롯된다고 이종선소장은 말한다. 또한 근로자의 후생복지 증진은 화장실에서 시작될 만큼 화장실을 휴게실처럼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이를 전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다.

오늘 찾은 올리비아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2002년 9월에 착공하여 2005년 8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올리비아 복합 건물 현장도 화장실은 남다르다. 근로자의 후생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음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평소 안전은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이종선소장은 올해가 현장 대리인으로 10년을 맞이하는 해인데, 특이할 만한 사항은 현장대리인 경력 10년간 무재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종선소장은 안전은 정직하기에 우리가 얼마만큼 안전에 투자했는지, 관심을 갖고 매진했는지에 비례하여 그것이 결과로 나타난다고 한다. 결국 무재해 10년은 이종선소장의 안전마인드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하는 부분이다.

### 후배들에게 안전시공의 기준을 마련할 터

이 현장은 바로 옆에 지하철 역사 현장이 있고, 지하철 역사와 연결된다. 그러나 이 현장은 이미 옆 현장에서 지하로 터파기를 한 상태이다.

동시에 터파기를 해야 하나, 옆 현장에서 이미 터파기를 완료한 상태여서 성원건설로써는 따로 터파기를 해야 하는 국내에서 유래가 없는 현장이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위험은 옆 현장에서 터파기하면서 설치한 Strut에 대한 응력이다. 옆 현장의 Strut 응력과 같은 응력의 Strut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인데 자칫 잘못된 계측으로 설치된 Strut가 엄청난 붕괴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유일의 현장으로 올리비아 현장에서 시공되는 모든 것이 처음이다. 이에 이종선소장은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풀어 정립하고 있다. 처음부터 어느 누구도 시공과 관련하여 가능성만 언급하였지 확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이종선소장의 손에서 처리되었고 그로 인한 많은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 그래서 인지 이종선소장은 이 곳에 와서 흰머리가 많이 생겼다고 한다. 지금 지하 2/3지점까지 안전하게 공정을 진척시킨 이 현장에서 진행중인 공정은 Earth Anchor 구간이다. 그만큼 위험은 줄어들었지만 Strut 해체시 전과 같은 위험이 예측되어 현장에서는 Strut와 Earth Anchor 설치조건을 Check하며 계측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그 외에 국내 유일의 환경에서 안전시공을 하는 데에는 이종선소장 나름의 원칙이 있다. 바

# 건설안전리포트

로 원칙 고수이다. 원가에 욕심을 버리고, 무조건적으로 안전을 고려한 고품질 안전시공의 원칙을 고수한 것이 무재해 10년과 힘든 공정을 안전하게 시공하게 하는 모태가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종선소장은 국내에서 처음 접하는 이곳 현장의 계측 자료나 시공법이 후배들과 다른 현장에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매일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흘리지 않고 정리해 둔다고 한다. 우리 나라 건축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이종선소장의 또다른 노력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 자율운영 추진

안전은 강압적이지 않아야 한다. 스스로 하려고 하는 마음과 지키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는 곧 현장의 자율적인 운영만이 가능한 것이다.

자율운영에 있어서 직원 상호간의 신뢰는 필수이며 전제되어야 한다.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최종 책임자는 소장인 '나' 라는 인식을 직원에게 심어주고, 직원들로 하여금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자율운영을 하도록 강조한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협력업체 관리에도 예외는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묵묵히 현장정책에 따라 준 승지종합건설(주) 정기종사장과, 정웅기소장을 비롯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이종선소장은 전하며, 개인적으로 이어져가고 있는 무재해에는 승지종합건설(주)와 같은 안전을 사랑하고 지키는 이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고, 이들을 만난 것 자체가 행운이고 복이라고 겸손해한다.

## 취재를 마치면서

올리비아 복합건물 현장의 안전관리를 지휘하고 있는 박정진주임은 안전사고에 대해 70%가 불안정한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심리상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근로자의 심리상태를 살피는 것이 안전관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때 수직하달적인 만남이 아닌 밑에서 올라오는 자율적인 만남이야말로 관리감독자와 근로자들간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곧 수동적이지 않은 자율적인 행동으로 발전된다는 것이 박정진 주임이 주장하는 바이다.

끝으로, 올리비아 현장의 무재해 준공과 이종선소장의 정년 때까지 무재해를 이룩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무재해 소장으로서의 노하우가 후배들에게 전수되길 바란다.

(최종덕 기자)

